

개인적인 고통이나 상처 치유

인문학습과 시민교육

글 · 양은아 서울대 평생교육원 시민교양교육팀장

학습자 이야기¹⁾

한정윤은 학습자다. 내가 한정윤을 처음 만난 것은 2008년 5월이었다. 나는 그때 인문학습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정윤은 당시 대중인문학 기관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처음 만난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첫 대면에서 한정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당히 낮설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자신을 알리는 매개체로서 선택한 것은 마치 철학 전문가처럼 시작하고 있는 철학이론이었다. 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정윤과의 첫 대화에서 받은 인상은 '그의 모습 뒤로 어떠한 경험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들도록 했다. "현재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첫 만남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운을 떼었던 질문에 그는 거침없이 철학 전문용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다짜고짜 끝없이 라깡을 등장시켰다.

“라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나는 처음에 이 강좌를 선택하고 첫 강의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집에 가서 혼자 라깡의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일단 ‘라깡’이라는 기표는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달아나요. 그가 설명하는 기표도 마찬가지요. 어떤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저 멀리 달아나죠. 어떤 개인이라도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르고요.

이런 의미에서 라깡과 신경증에 관한 기표를 찾는 데 이미 반쯤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실체를 붙잡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주저앉고 말아야만 하는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라깡은 현대를 설명하는 데, 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많은 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신경증론 역시 이런 논거 중 하나인데 라깡 학파에

게 신경증 증상은 ‘존재’가 ‘주체’에게 던지는 일종의 강력한 물음이에요. “당신은 과연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진정 살아있는가, 마지못해 사는 죽은 존재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같은 물음들에 진지하게 대결하는 과정에서 신경증자는 어느덧 심오한 철학자나 정신분석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한정윤의 인생은 이런 유창하지만 조금은 기이한 철학적 언변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인문적 사고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여자로서 드물게 공대 기계공학부를 전공했고, 대학시절까지 특별히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연결될 만한 인연은 없었다.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인문학 관련 교과들을 조각그림처럼 배우기는 했지만 오히려 물화된 학교 경험은 인문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만 남겼다.

왜 인문학을 학습할까

“왜 인문학을 공부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중인문학기관에서 만난 학습자들의 첫 대답은 현실적인 이유 자체였다. 그러나 그러한 실제적인 요청 뒤에는 심층의 차원에서 삶의 의구심을 밀어내는 실존적인 계기들이 존재했다.

실존적 질문의 생성과 갈급함

인문학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삶,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써 타인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자신이 안고 있는 결핍의 문제나 상실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자기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삶의 위기 상황에서 경험한 고통의 체험은 자신과 관련한 실존적 문제를 표면 위로 드러나게 한다. 이들

은 세상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나 결핍의 상황에 직면할 때 개인적인 문제는 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 삶 전체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예컨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천착하게 된다거나, 가까운 사람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삶에 대한 ‘회의감’은 지금까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가 공동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거듭 인식케 하면서, 동일한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킨다. 이를 통해 ‘고통’, ‘불안’, ‘고독’과 같은 정서적인 균열을 경험하면서 실존적인 질문들이 생겨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된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물음은 의미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깊은 골을 경험할 때, 특히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예컨대,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던 경험,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상황에서 대립적 각을 형성했었던 경험 등, 삶의 반경에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심리적 고통을 겪었던 경우이다. 이와 같은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이끈다.

고통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경험이다. 그것은 때론 비밀스럽고 사적이어서 남에게 드러내놓기 어렵다. 이들에게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기 때문에 비록 주관적인 경험이고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반면에 그 고통에 대한 질문을 세상에 던짐

1)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필자가 다양한 대중인문학 학습 현장에서 만난 학습자들이며,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이 글은 필자의 박사논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되었다.



으로써 공개적이 되고자 한다.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단지 호기심에서 나온 이론적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직면하는 고통의 체험을 밖으로 끌어내어 확인해 보고자 하는 절실한 물음이 된다. 고통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답이 존재하지 않는 삶의 문제는 그 답을 탐구해 가는 과정 역시 각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문학을 학습한다는 의미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탐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섭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장(場)에서의 시련과 좌절 “꿈을 꾸고 싶다”

실존적 의미와 관련된 질문은 인간관계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이들에게 사회적 장의 의미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존재를 시험받고 실현해 나가는 주된 관계의 장이다. 그 안에서 사회적 성공의 기쁨을 기대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실패로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한다. 낭떠러지에서 있는 것 같은 절박감을 겪어 본 사람에게 사회는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를 끊임없이 직면케 하는 혹독한 장이기도 하다.

이병우의 경우는 대학 졸업 직후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었던 은행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첫 직장에서 10년 넘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성실하게 한눈팔지 않고’ 생활했다. 직장은 그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열정을 쏟아 부은 대표적인 장이었다. 그곳에서 때로는 ‘몸 바쳐가며’, 때로는 다른 생활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회사에 매달려 왔다. 그러던 중 IMF가 닥쳐서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삶 전체가 와해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회적 장에서 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은 지금까지 집착해 왔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삶 전체를 재조정하는 시간으로 이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 우리를 에워싼 환경과 조건들, 이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의 복잡한 관계로부터 빠져나와 그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바라보고자 애쓰게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삶에 기대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의 삶의 반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의미를 되묻는 무수한 질문들이 표면화된다. 이들에게 사회라는 공간은 존재의 위기적 공간임과 아울러 비약적 공간의 잠재성

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치유’로서의 인문학 학습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질문을 밀어내는 근원적인 층위는 심층의 실존적인 영역이다. 때때로 삶의 위기 상황에서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는 표면적인 대책만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삶의 파장을 일으키며, 그로 인해 삶 전체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고통이 극대화됨을 경험한다.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문제로서 마주하는 고통은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 되레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과 답답함, 낙담함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세상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개인적인 고독이나 상처를 소통하는 내밀한 출구가 되고 있다. 세상 밖으로 내어놓지 못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학습을 통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은 또 다른 자신과의 만남이었다. 이들에게 고통은 가장 주관적인 것으로 체험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임을 발견할 때 자신이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현실에서 받지 못한 큰 위로를 전해 받는다.

이런 점에서 이들에게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치유의 경험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문학적 지식은 자기서사를 공유하는 누군가의 응답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소통의 접점을 찾지 못한 문제는 오히려 현실을 벗어난 인문학의 공간에서 소통되고 있다.

삶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위안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소통하는 내밀한 출구로써 인문학을 선택했다. 학습의 출발은 극히 주관적인 문제를 갖고 진입하

지만, 학습과정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두고 외부세계와 소통의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 학습의 과정 자체가 자신이 느끼는 유약함과 한계를 누군가에게 열어 보이는 과정이 되며, 그를 통해 자신의 혼란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알고 싶은 의지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혼입시키고 대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개인적이지만 고통의 양상은 결국 세상과 소통하는 의미의 교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공존재(共存재)로서의 삶과 상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위안과 의미를 전해 받는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자신에게 열어 보이는 경험 자체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의 시작이 되고 있다.

삶에서 만나는 고통의 의미는 단지 삶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요소라고만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고통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삶의 이해를 갈급하게 구하게 된다. 고통의 경험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식시키고, ‘나’를 사유하는 자로 일깨우면서, 내면의 성장으로 이끌게 된다.

인문학과 시민교육

최근 인문학의 회복은 전통적인 대학이 아닌 대중교육의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학 안에서 점차 줄어드는 교양교육과 인문학 전공학과들이 느끼는 위기의

세상 밖으로 내어놓지 못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학습을 통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은 또 다른 자신과의 만남이었다. (중략) 이들에게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치유의 경험이기도 하다.



인문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삶 속의 대중이고,
바로 그 살아 숨 쉬는 맥락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간 것이
실천인문학이다.

식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대학 밖에서는 철학교실, 인문학 아카데미 등 여러 수준과 차원에서의 인문학 강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인문학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스스로를 기존의 전통적 인문학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실천인문학', '대중인문학', '생활인문학', '시민인문학' 등으로 부른다. 흥미있는 점은, 이들 실천인문학자들은 기존의 인문학계의 생존방식 혹은 자기복제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대중인문교육이라는 활동무대를 통하여 그 담론과 정당성, 그리고 영향력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실천인문학이 자기정립해 나가려는 맥락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중과의 교육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인문학의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인문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삶 속의 대중이고, 바로 그 살아 숨 쉬는 맥락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간 것이 실천인문학이다.

인문학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며, 그것은 결코 실험실 안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고통 받고 실존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대중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다시 뿌리내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숙인을 비롯한 현장 인문학은 인문학의 시혜가 아니라 인문학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좋은 밭을 찾아간 것이고, 그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대상은 인문학과 인문학자들 그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며, 오직 인간의 삶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인문학의 언어들은 일상의 문제를 다시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검증되고 재개념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매개하는 활동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민*

